

# 사드 한파 끝...광주·전남 유커 유치 손 잡았다

### 21일까지 중국서 공동 마케팅 광주 양림동·월봉서원 등 소개 문화교류·교육관광 재개 노력

‘사드 갈등’이 서서히 풀려가면서 광주 시와 전남도의 중국 관광객 유치 발걸음도 바빠졌다. 섬과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인이 많아 한 때 광주지역 일부 호텔 투숙객이 모두 중국 관광객으로 채워질 정도로 이 지역의 대중국 관광 산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지만 ‘사드 갈등’으로 최근 시들해졌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손을 맞잡고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는 17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공동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마케팅 활동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수도권 5개 여행사가 참여해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매되는 여행상품 코스에는 광주지역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 투어와 월봉서원 등이 포함됐다.

공동 마케팅단은 오는 19일 중국여행사 CTS 상하이총사를 찾아 광주·전남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유치 계획, 지원 등을 협의하는 ‘세일즈 콜’ 행사를 한다. 이어 상하이 현지 1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여행상품 트레이블마트’도 진행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베이징 북경유한국제여행사와 부녀여행사를 찾아 ‘중국 청소년 단체관광 세일즈 콜’ 행사를 연다.

이어 중국 청소년 교육관광객 유치에 대한 교육관광 인프라를 소개한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21일에는 베이징 현지 여행사를 타깃으로 한 ‘트래블마트’를, 오후에는 베이징 마이투어여행사 관계자와 면담하고 ‘세일즈 콜’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앞서 광주시는 이번 관광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여행사에는 국외 여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드 여파’로 지난 1년여 간 중단됐던

한·중 노인문화관광 프로그램, 해외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등의 재개를 위한 사전협력, 관광상품 개발 등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사드 갈등으로 중단된 중국 단체관광을 재개하는 관광마케팅의 하나로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광주·전남지역 여행상품 판매는 물론, 광주·전남의 다양한 매력과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9월 중국 선양과 대련, 10월 광주에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교육관광설명회를 했다. 또 11월에는 중국 쿤밍에서 열린 2017 중국국제여유교육회에서 호남권 공동으로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상담 등을 진행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환경공단,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환경지킴이’ 광주환경공단이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공단은 17일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해당 기간에 발생된 부패사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701개 공공기관 중 청렴도 평가 면제기관은 광주환경공단을 포함, 14곳에 불과하다.

환경공단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공모해 선정한 ‘함께 해요 청렴공단, 믿음가요 희망 광주’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청렴문화 4대 전략, 12개 과제의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청렴 사적지 탐방 행사도 진행했다. 공직자의 표상인 다산 정약용의 기념관

을 찾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다산의 발자취를 찾아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탐방, 청렴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자기도형 청렴 학습 시스템과 인사철과 명절 때 사내 메일과 문자 등을 활용한 청렴 서한문,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또 제도적 측면에서 채용 비위, 부패·공익 신고 방해, 부정 청탁행위 등의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 점도 청렴문화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안용훈 이사장은 “청렴은 시대적 사명으로서 청렴하지 않은 조직은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의 사랑도 받을 수 없다”며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깨끗한 청렴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서 깨끗한 공단,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주민 중심 도시재생이 성공 조건” 토론회

향후 도시재생은 실적 중심의 일회성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돼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마을기업,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참여주체적 시각에서 재생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단법인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첫 발제에서 윤준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는 ‘성리학 도시재생에서 실학 도시재생으로’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현황과 일본의 실패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창조적 사고와 유연한 방식의 도시재생이 중요하다”며 “실적 중심의 일회성 사업보다는 주민 중심의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도시재생 현황과 주요 사업

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도시재생이 단순히 사업적 측면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기업,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참여주체적 시각에서 재생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토론회에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병완 상임회장은 “광주가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키워왔다”며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한 마을 만들기의 역량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서로 맞춰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평환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는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가 함께 만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시민활동가, 주민들이 광주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주최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지난 16일 막을 내린 제1회 교육문화예술축제에서 학생들이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 “청소년이 낸 문제 어른 것보다 낫네요”

### 광산구 교육문화예술축제 3000명 참가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주최한 제1회 교육문화예술축제가 사흘간의 대장정 끝에 16일 막을 내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과 시민 3000여 명이 찾아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을 혁신’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이번 축제의 핵심 의미는 ‘그동안 어른들이 낸 문제를 풀고, 그 점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대에 저항하는 청소년’이다. 이 때문에 축제 슬로건도 ‘이제 문제는 우리가 뉘게’로 정하고 현실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스스로 진행한 결과물을 4개 섹션 45개 전시와 11개 체험 코스에 담았다.

전시체험 기획 주제는 ‘살아남는 자들의 슬픔에서 살아갈 자들의 기쁨으로’ 5·18항쟁 마지막 날 윤상원 열사가 어린 학생들을 전남도청에서 내보내며 당부한 ‘역사의 증인’을 모티브로 삼았다.

특히 이번 축제는 ‘특별한 큐레이터’로 인해 방문객의 호응을 배가시켰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도슨트로 나섰다. 이들을 대대수는 전시체험물 기획과 제작에 참가해 축제의 의도와 메시지를 정확히 꿰뚫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와서 행사를 본 시민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청소년 도슨트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전용 모바일 앱으로 관람객 편의를 높

인 점도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장에서 내려 받은 어플로 각 부스 정보를 확인하고, 전송 받은 퀴즈를 풀수 있어 축제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청소년들의 ‘외침’에 어른들도 화답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15일과 16일 포럼과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청소년이 낸 문제’의 답을 모색했다.

이 밖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진 건축사, 안예경 아트디렉터, 광덕훈(취시공미디어 부회장, 이성원 거꾸로 캠퍼스 교사 대표, 김해자 광산중 교사 등이 △배움의 공간 △배움의 다양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축제는 16일 오후 ‘누구나 학교 선편식’으로 막을 내렸다. 축제 참가 청소년들은 사흘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에 전달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필로티 건축물 펜샨나 복구, 58곳 점검·지도

광주시 복구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복구는 “지난 30일부터 내진설계 미적용 필로티 구조 다가구주택 58개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진행한 결과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필로티 건축물은 기둥으로 건물 1층을 지피면에서 띄운 구조로, 대부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원룸형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 주고 있어 많은 건축주들이 선호하는 구조이다. 현재 복구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총 1490개 가 있으며, 이중 2005년 이전 지어진 내진 설계 미적용 대상 건물은 172개다.

구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58개를 선정해 필로티 기둥의 이음새 부분, 중간 부분 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다.

긴급점검 결과 중대한 균열이 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미한 사항은 건축주에게 안전점검과 함께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는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5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5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천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